

청소년기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시장 성과

- 2007년 당시 중학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진로야망과 진로 수업 참여가 더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직업 관련 체험 참여도가 더 높음.
- 청소년기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진로야망의 형성은 성인기에 NEET가 되지 않을 확률을 각각 1.2배와 1.3배 높이고,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도 각각 3.2%, 4.8% 증가시킴.
- 진로야망에 맞는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여학생에 비해 성인이 된 후 월 평균 소득이 약 1만 8천 원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 진로야망이 있는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소득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적에 따라 청소년기의 진로야망이 성인기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 학교교육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희망 직업에 필요한 교육 계획과 연계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주]

이 글은 유한구·박화춘(2021).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시장 성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¹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재정리함.

[각주]

1) 10개국의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경험과 성인기 고용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임.

2) 이 분석의 자료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018년 성인이 되었을 때의 결과로 정부가 본격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음을 고려하여야 함.

3)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직업이 없는 청년

미래의 직업에 대한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준비가 실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OECD는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학교, 그리고 미래의 고용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고자 함.
- 이 분석 결과는 OECD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 프로젝트의 한국 자료 분석 결과임.

-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개념, 진로야망,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중등교육 단계의 학교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²⁾

분석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2005(KELS2005)」 3차 조사(2007년) 및 11차 조사(2018년) 자료

- 분석 자료: KELS2005는 2005년 전국의 150개 중학교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추적조사한 패널자료로, 2007년 중학교 3학년 학생 6,568명의 3차 조사 결과와 2018년 3,720명의 11차 조사 결과를 사용함.
- 주요 변수: 25세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 변수로 NEET³⁾ 여부와 소득을 사용하였고, 중학교 3학년 진로 관련 변수로 자아개념, 진로야망, 진로체험 등의 변수를 사용함.



KRIVET 모바일용

02 2007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의 진로교육 및 체험 현황

| 2007년 당시, 중학교 3학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진로야망과 진로 수업 참여가 더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직업 관련 체험 참여도가 더 높음.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야망, 교육 연계 진로야망, 진로 수업 참여도가 더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진로 확정성과 직업 관련 체험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적이 낮은 학생은 회사나 공장과 같은 직업 현장 방문, 직업박람회, 진로체험 프로그램, 아르바이트의 참여도가 높으며, 성적이 높은 학생은 진로확정성과 진로야망, 교육 연계 진로야망이 높고 직접적인 직업 체험보다는 진로 수업에 더 많이 참여함.

〈표 1〉 성별과 성적에 따른 진로 경험(I)

(단위: %)

	성별		중학교 성적		
	남자	여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진로확정성	87.8	85.5	88.6	85.8	85.3
진로야망	51.6	53.0	67.6	49.9	38.1
교육 연계 진로야망	41.7	44.3	58.9	41.1	27.4
진로 수업	65.1	70.4	71.8	68.4	62.2
직업 현장 방문(회사, 공장 등)	35.7	28.0	26.7	32.0	37.9
직업박람회	33.4	30.1	27.8	31.9	36.1
진로체험 프로그램	30.9	25.5	21.4	28.5	35.8
아르바이트	12.7	14.0	6.8	13.2	20.7
전체	52.2	47.8	34.3	34.1	31.5

주 |

- 1) 성별에 따른 진로야망, 아르바이트의 차이를 제외하고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 2) 진로확정성: 30세에 희망하는 직업을 결정했는지 여부
- 3) 진로야망: 30세에 갖게 될 직업이 대학 이상의 교육과 사회적 위세가 있는지 여부
- 4) 교육 연계 진로야망: 진로 야망이 있는 경우 대학 교육 이상의 교육 계획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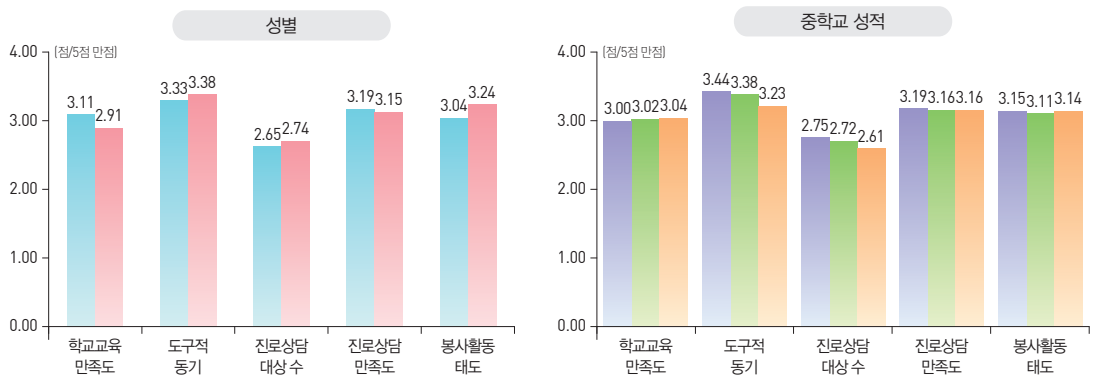
|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학교교육 만족도와 진로상담 만족도가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중하위권 학생보다 진로 관련 대화 상대가 더 다양함.

- 남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와 진로상담 만족도가 3.11점과 3.19점으로 여학생(2.91점, 3.15점)보다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도구적 동기가 높고, 진로 관련 대화 상대가 더 많으며, 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
-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도구적 동기가 중하위권 학생보다 더 높고 진로 관련 대화 상대도 더 다양함.



주 |

도구적 동기: 본인의 교육 동기 문항 중 취업 기회의 확대, '경제적 안정', '좋은 직업'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를 사용함.



〈그림 1〉 성별과 성적에 따른 진로 경험(II)

03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시장 성과

|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진로야망은 성인이 되었을 때 NEET가 될 확률을 낮춰주고,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높임.

- 배경 변수를 통제한 결과,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1점 높으면 성인기에 NEET가 되지 않을 확률이 1.2배 높아지고, 교육 연계 진로야망이 있는 경우는 1.3배, 회사나 기업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배 높아짐.

- 배경 변수와 기업 관련 변수를 통제한 결과, 청소년기에 긍정적 자아개념은 1점당 3.2%의 소득 향상 효과가 있고, 진로야망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4.8%의 소득 향상 효과가 있음.
- 진로체험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7년 중학교의 진로체험과 2010년 이후의 진로체험에 차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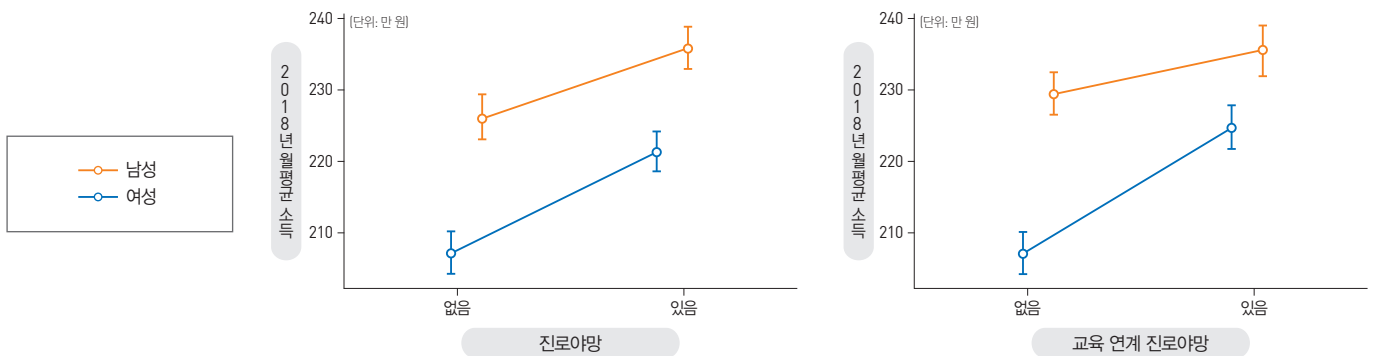
〈표 2〉 NEET가 되지 않을 확률 및 성인기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NEET가 되지 않을 확률			성인기 소득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긍정적 자아개념	0.187*	0.095	1.2	0.032*	0.015
진로확정성	0.139	0.133	1.2	-0.040+	0.021
교육 연계 진로야망	0.236*	0.096	1.3	0.048**	0.015
학교교육 만족도	-0.062	0.077	0.9	-0.012	0.012
도구적 동기	0.184*	0.088	1.2	0.015	0.014
학원강사 상담	0.138	0.094	1.1	0.028+	0.015
상담 만족도	-0.133	0.109	0.9	-0.024	0.016
진로 수업 참여	0.000	0.107	1.0	0.008	0.016
직업 현장 방문(회사, 공장 등)	0.207+	0.113	1.2	0.024	0.017
아르바이트	0.070	0.153	1.1	0.024	0.022
봉사활동 태도	0.018	0.063	1.0	-0.003	0.010
	N=2,966, R ² =.035			N=1,595, R ² =.224	

주 |
+p<.10, *p<.05, **p<.01

04 청소년기의 진로야망과 성인기 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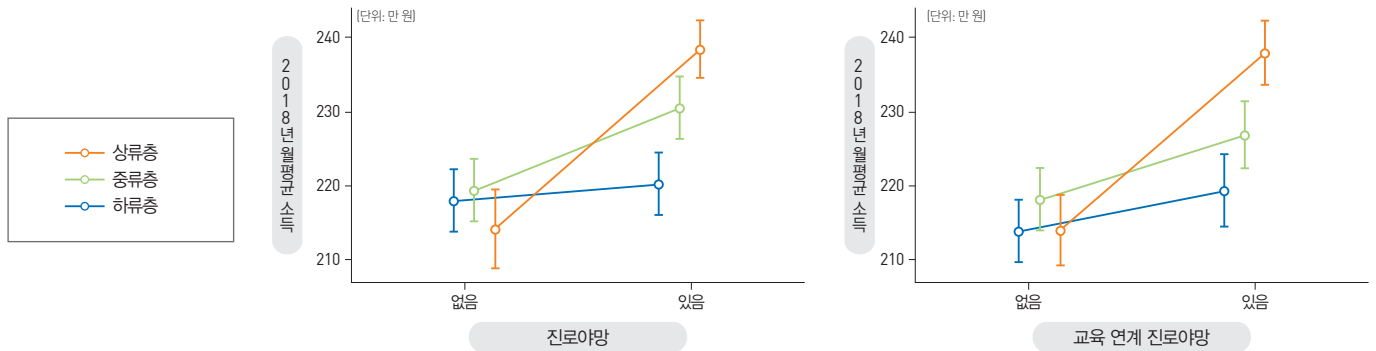
- | 청소년기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직업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던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여학생에 비해 성별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진로야망의 유무는 남녀 간 소득격차를 줄이지 않으나, 교육과 연계된 진로야망은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진로야망에 대한 교육 계획을 갖고 있는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여학생에 비해 월 평균 약 11만 8천 원의 소득 상승 효과가 있음.



[그림 2] 성별과 진로야망의 소득 효과

| 청소년기 진로야망의 성인기 소득 효과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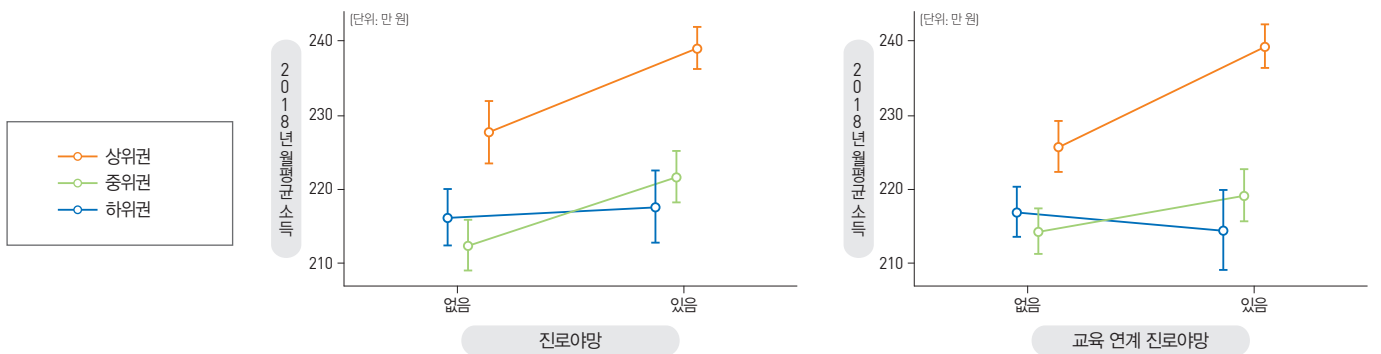
- 진로야망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없으나, 상류층인 경우에 진로야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서, 진로야망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그림 3] 사회경제적 배경과 진로야망의 소득 효과

청소년기 진로야망의 성인기 소득 효과는 중학교 성적이 상위 30%인 학생에게서 주로 나타남.

- 중학교 성적이 상위 30%인 경우, 청소년기의 진로야망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이 상승하는 폭이 더 큰 반면,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의 진로야망 유무가 성인기의 소득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음.
- 즉, 성적이 좋고 진로야망이 있는 경우에 소득 상승효과가 더 높아, 진로야망의 효과가 성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그림 4] 성과와 진로야망의 소득 효과

05 시사점

- 청소년기에 형성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미래 직업에 대한 야망, 그리고 적절한 진로체험이 성인기의 노동시장 진입 후에 NEET 여부, 소득의 격차, 역량의 향상 등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청소년기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대한 야망을 키우며, 이를 지원하는 적절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 상승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 성적에 따른 소득 상승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청소년기 학생들이 보다 나은 직업을 원하고, 그에 맞춰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소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학교교육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계획과 연계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유 한 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화 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